

전남도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 도약

나주에 2000억 들여 그린수소연구원 설립 여수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 권역별 추진 전략 수립

여수를 '수소시범도시'로 조성하고 2000억원을 들여 나주에 그린수소연구원을 설립하는가 하면, 서부권에는 '그린수소 생산 및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남 지역을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남도의 수소산업 생태계 청사진이 나왔다.

전남도의 청사진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권역별 중부권을 그린수소에너지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에는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를 구축하는 한

편, 동부권에 수소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와 5가지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중부권의 경우 그린수소에너지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우는 데 필요한 국책 연구소인 그린수소연구원(가칭)을 나주에 2000억원을 들여 설립하고 한전공대와 연계, 수소 생산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그린수소연구원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전남도는 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실증 테스트베드(380억)를 나주에 구축하는 등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

이다.

서부권에는 서남해안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풍력)를 활용할겠다는 전략이다. 220억원을 들여 진도 가사도를 '수소기반 에너지 자립섬 고도화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고 서남해안 일대에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연계한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동부권은 수소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광양만에 포스코 ESM 등 17개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소재 기업들이 집적화된 점을 활용할겠다는 계획이다.

여수산단 내 13개사의 부생수소 생산량만 보더라도 전국 생산량(191만2000t)의 33.8%로 전국 2위에 이르는데다,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991GWh)과 해상풍력 잠재량(12.4GW)은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활용,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특화 산단을 조성하면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늘려 전남지역 전 지역에 수소차 172대가 달릴 수 있도록 하고 7개 충전시설도 구축하는 한편, 450억원을 들여 여수를 수소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9일 열린 '2019년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 보고회'에서도 이같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 이름 공모

5월 31일까지 접수

광주에 조성되는 현대자동차 합작법인의 이름을 시민이 짓는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의미를 반영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1인당 1점씩 참여할 수 있다.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 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 점검,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상위로 선정된 최종 수상작 22건에는 총 4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수상작은 6월 2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수상자가 광주 시민인 경우에는 광주시 지역 화폐로 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광주시는 투자자 모집, 법인 설립 등을 위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행기부터는 공장 설립 및 착공을 진행하고 2021년 하반기 시험생산 및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정부 대응과제 193개 선정

전남도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추진, 스마트산단 및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2020년 국고 건의 등을 위한 대응과제로 발굴해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 보고회를 갖고,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193개 대응과제(국고건의 61건)를 선정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 대상이 된 대응과제는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드론산업 인프라 확충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R&D 혁신 ▲항공·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농촌 융복합산업 확대 ▲스마트 농축수산업 확산 ▲항만 미세먼 지 저감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이들 과제는 전남도 각 실·국이 최근 발표된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분석해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병호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균형발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 기조를 심분 활용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며 "발굴된 과제들이 국가계획과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적극적인 국고건의 활동을 전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 화장로 2020년 공급 부족

광주영락공원의 화장로가 2020년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1일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박사가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에서 '영락공원 수급분석 결과 공급 부족이 예상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영락공원 화장로 11기 가운데 1999년에 설치된 3기(7·8·9호기)는 올해 내구연한(20년)이 만료된다. 2000년에 설치된 2기(5·6호기)는 2020년 내구연한이 끝난다. 현재 수요를 고려할 때 2020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박사는 단기적으로 정비·수리 등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장시설은 올해 상반기부터, 봉안시설은 2025년부터, 자연장은 2위용이 올해부터, 6위용이 2023년부터, 1·4위용이 2024년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역 화장률은 2004년 37.8%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85.3%를 기록했다. 시민의식조사 결과 화장 후 유골처리 방법은 봉안시설(53.3%)이나 자연장(21.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도심 79곳에 달하는 공설 공동묘지, 무연고 분묘 등이 혐오시설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락공원의 과밀해소 측면에서 이 묘지를 도심형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지식정보기업 9곳 투자 유치 협약 체결

전남도가 지난 29일 수도권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도내에 신규 창업하는 9개의 지식정보문화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지역 청년 인재 7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투자 협약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문화 콘텐츠 기반으로 항공정보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비전하이텍, 생체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 시스템을 제작중인 (주)피루제이, 빅데이터를 기반해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컨텐츠런 등 9개 기업이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업들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여성행복 응원센터 비전 선포식. 지난 29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행복응원센터 비전 선포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고점례 북구의회위원장, 장세라나 광주여성회 회장 등 회원들이 차별 없는 양성평등 북구를 만들기 위한 구호와 함께 카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민간기업 수익성 개선...어등산 개발 3차 공모 시동

3일 현장설명회, 6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광주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광산구 운수동(질골마을)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제안 공모 관련 현장설명회를 연다. 특히 이번 3차 공모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644억원가량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3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31일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 대상지 어등산의 지형

적 개발여건 등을 사업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공모와 관련된 질의를 접수하고 19일 답변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6월 21일까지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644억원가량 부여했다. 상가시설 부지의 견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수

익성을 594억원 개선한 효과를 봤다. 과거 2차 공모 당시 기준, 상가의 1층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2층 900만원, 3층 60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이번 공모에선 견제율이 커지면서 상가시설을 단층에 배치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594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부분 점수별 환원 금액도 2차 공모 당시 100억원이상(50점 만점)에서 3차는 50억원(50점 만점)으로 줄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50%원 줄였다.

또 지난 2차 공모 당시 논란이 됐던 관광 숙박시설 외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관련해서는 견립을 허용하되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위탁·운영하는 조건을 담았다.

한편, 어등산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중체육공포장 9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개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 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